

# 호전광들의 해괴한 자화자찬

요즘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실전적인 전구급전쟁연습》이 정상시행되었다는니, 법 《정부》급의 《총력전》 수행능력이 제고되었다는니, 《위기관리능력》을 한층 높이고 《한》미련합방위태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느니 하며 미국과 약하며 강행한 《을지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의 《성과》에 대해 떠들고있다.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가련한 친미주, 전쟁하수인의 자취위안이고 내부

반환훈련을 하는 과정에 저들의 주구에 불과한 남조선군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 몹시도 언짢아 자기 책상우에 놓인 《미래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명패를 집어던지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로폭적으로 해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남조선강점 미군이 합동군사연습과정에서 남조선군부들과의 각종 정보공유 등에서 제멋대로 놀아댄 것 등도 그러한 예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역적패당이 《한》미련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강화를 떠들고있으니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윤석열역적패당이 합동군사연습기간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린 것도 주목할 만 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장관들은 저들의 망동이 초래할 후과가 두려워 국도

의 긴장과 불안속에 고달픈 시간을 보냈다.

남조선내에서도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그칠 사이없이 벌어져 역적패당의 통치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그 무슨 《성과》에 대해 떠들고있는 것은 무던의 망두적도 폭소를 터칠 회비극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을지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의 그 무슨 《성과》에 대해 떠들고있는 것은 내외가 규탄하는 범죄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정제화하여 이 땅에서 기어이 동족상쟁의 참화를 불러오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의 발로이기도 하다. 범죄자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찬미하는 것은 범죄를 계속 일삼고 더 큰 죄악을 저

지르는데로 나가려는 추악한 심리의 발현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 미국의 가련한 식민주주에 불과한 제 치지도 모르고 동족을 겨냥하여 벌리는 전쟁불장난을 미화분식하고 그 의미에 대해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은 북침전쟁행동을 지속하고 기어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극악한 동족대결음성에 따른 것으로서 역적패당의 대결광기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단계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분별없이 설치하는 열간이들의 말로는 비참한 법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광판은 저들의 참혹한 종말을 바삭 알았기

## 만화 《성과》 발표회



오리무중이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사방 5리나 되는 안개속에 묻혔다는 뜻으로 일의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오리무중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남조선 각계층의 표현을 빌면 윤석열역적패당의 정치라는 것은 《망치》입니다.

《검찰공화국》,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권》, 《안방정치》, 거기에다 정치적반대에 대한 포악스러운 보복이 이어지고 친인척과 심복들의 사적재용과 부정부패의혹들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있습니다.

역도의 통보문사건을 다 아실겁니다.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어쩌구저쩌구 했더니 전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을 보고 《내부총질》을 했다더니 역도는 《국민의힘》안에 《통보문폭탄》을 떨어야 아예 《풍가루집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준석과 그의 지지자가 반발하고 《윤핵관》을 비롯한 친윤석열파는 극구 방어하고.

현재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국민의힘》지도부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팔다리만 있는 《뇌수공백》상태가 되어 붕괴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진대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욕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권》입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 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진대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욕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권》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물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재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오년무중》

어쩔수 없다.

얼마전에 민생안정대책을 세우다면서 내놓은 《교육지책》이라는 것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입니다.

민민들의 피를 짜내서는 다시 마시라고 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권》이라는 비난도 약과일 따름입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 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진대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욕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권》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물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재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오년무중》

어쩔수 없다.

얼마전에 민생안정대책을 세우다면서 내놓은 《교육지책》이라는 것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입니다.

민민들의 피를 짜내서는 다시 마시라고 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권》이라는 비난도 약과일 따름입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 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진대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욕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권》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물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재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오년무중》

어쩔수 없다.

얼마전에 민생안정대책을 세우다면서 내놓은 《교육지책》이라는 것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입니다.

민민들의 피를 짜내서는 다시 마시라고 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권》이라는 비난도 약과일 따름입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 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진대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욕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권》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물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재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오년무중》

어쩔수 없다.

얼마전에 민생안정대책을 세우다면서 내놓은 《교육지책》이라는 것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입니다.

민민들의 피를 짜내서는 다시 마시라고 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권》이라는 비난도 약과일 따름입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 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진대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욕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권》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물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재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 감출수 없는 친일시대매국노의 본색

윤석열역적패당이 친일매국노적본색을 더욱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최근 일본 것들이 오는 11월 해상 《자위대》 창설 70년을 계기로 《육일기》를 빼앗아 내걸고 진행하는 국제관함식에 남조선해군이 참가할것을 로폭적으로 강박하고있는 가운데 역적패당이 이를 《한》일관계개선의 돌도 없는 기회로 여기면서 참가해보려고 교묘하게 놀아내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지금 역적패당은 일본해상 《자위대》가 오래전부터 《육일기》를 계양하고있는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니, 관계개선이 우선이라느니 하면서 일본이 벌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는 용납 못할 친일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해상 《자위대》의 《육일기》가 《일장기》와 함께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때마다 내흔들었던 전

범기, 군국주의상징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육일기》가 날리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것들이 재더미로 되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육일기》는 오늘날 치명적인 일본가할것을 로폭적으로 강박하고있는 가운데 역적패당이 이를 《한》일관계개선의 돌도 없는 기회로 여기면서 참가해보려고 교묘하게 놀아내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지금 역적패당은 일본해상 《자위대》가 오래전부터 《육일기》를 계양하고있는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니, 관계개선이 우선이라느니 하면서 일본이 벌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는 용납 못할 친일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해상 《자위대》의 《육일기》가 《일장기》와 함께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때마다 내흔들었던 전



## 민심의 물을 열지 못한다

어디서나 욕을 민심의 불만 치솟으니 몇달도 되지 않아 권력이 흔들흔들

민생에 관심이 있는듯 형식수설 잘도 엮어대는 역도 소상공인들이 기본이라고 엄지손가락 빼어대니 《배우》의 솜씨로서는 나무라테 없구나

역도의 회피운 말따마나 민심이 모이고 민심이 흐르는 시장들에

어디서나 욕을 민심의 불만 치솟으니 몇달도 되지 않아 권력이 흔들흔들

민생에 관심이 있는듯 형식수설 잘도 엮어대는 역도 소상공인들이 기본이라고 엄지손가락 빼어대니 《배우》의 솜씨로서는 나무라테 없구나

역도의 회피운 말따마나 민심이 모이고 민심이 흐르는 시장들에

어디서나 욕을 민심의 불만 치솟으니 몇달도 되지 않아 권력이 흔들흔들

민생에 관심이 있는듯 형식수설 잘도 엮어대는 역도 소상공인들이 기본이라고 엄지손가락 빼어대니 《배우》의 솜씨로서는 나무라테 없구나

역도의 회피운 말따마나 민심이 모이고 민심이 흐르는 시장들에

어디서나 욕을 민심의 불만 치솟으니 몇달도 되지 않아 권력이 흔들흔들

민생에 관심이 있는듯 형식수설 잘도 엮어대는 역도 소상공인들이 기본이라고 엄지손가락 빼어대니 《배우》의 솜씨로서는 나무라테 없구나

역도의 회피운 말따마나 민심이 모이고 민심이 흐르는 시장들에